

고문서를 통해 본 梧峯 선생의 생애와 詩에 나타난 현실 인식¹⁾

2020년 2월 1일 龜尾里 梧峯 宗家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위원 김기엽

1. 序言

한국 漢詩史에서 조선 중기는 문예적 지향이 변화하면서 學唐이 대세로 자리 잡던 시기이다. 특히 문예가 부흥한 宣祖朝에 이르러서는 戰亂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뛰어난 한시 작가들이 대거 출현하여 唐風으로 대표되는 詩壇의 번성을 주도하였다.

梧峯 申之梯(1562~1624) 선생 역시 이 시기에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을 겪으며 많은 한시 작품을 남긴 문예 부흥기의 문인이라 할 수 있다. 28세에 치른 과거에서 대책문으로 장원을 차지한 뒤, 내직으로 있을 때는 同鄕의 관료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고 깊은 우의를 다졌으며, 외직으로 나가서는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고 지방민을 교화하는 데에 힘썼다.

『梧峯集』은 본집 7권 4책과 별집 1책으로 되어 있는데, 본집 중에 1~5권이 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이어 간행된 별집에도 한시가 적지 않게 실려 있다. 전체 문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오봉 선생의 문학적 재능이 시를 중심으로 발휘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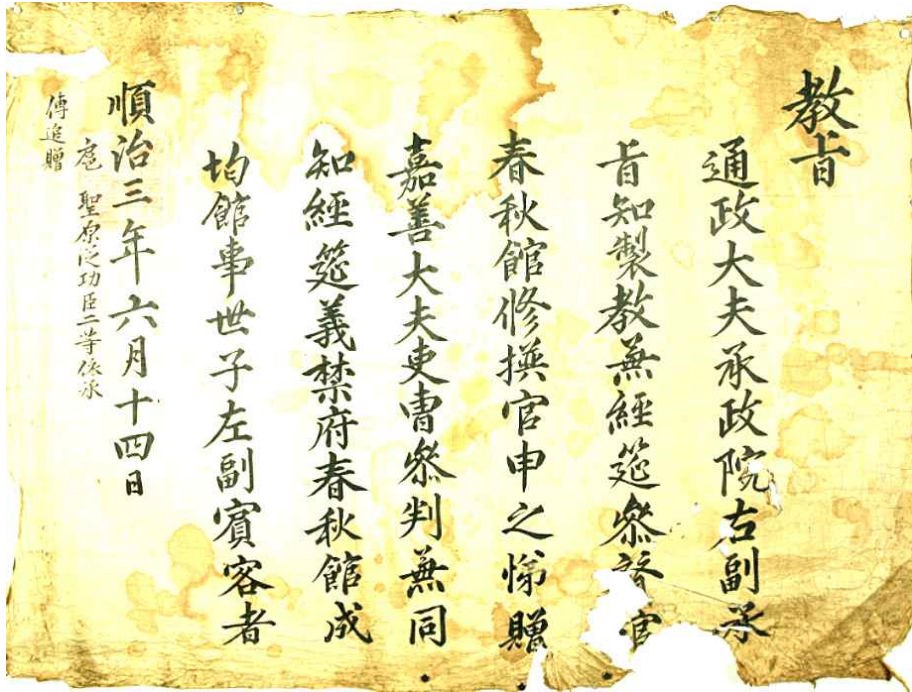
그동안 오봉 선생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그리 활성화 되지 않았으나 작년 한국국학진흥원에서 『梧峯集』을 국역하여 간행한 뒤로 선생의 학문과 문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는 고문서를 통해 선생의 관력과 생애를 살피고, 문집의 한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작품이 지어진 창원 부사 재직기의 시를 중심으로 작품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살피고자 한다.

2. 官歷과 生涯

오봉 선생의 자는 順夫, 호는 梧峯, 본관은 鵝洲이다. 경북 義城 출신으로 惟一齋 金彦璣를 師事하였으며, 1589년에 증광 문과에 甲科로 급제하여 내·외직을 두루 거쳤다. 歿後에 의성의 藏待書院에 배향되었으며 이조 참판에 증직되었다.

1) 이 글은 2019년 5월 31일 대만정치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과 2019년 12월 31일 한국한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재정리한 것이다.

〈자료 1〉 卒後 1646년에 내려진 이조 참판 추증 교지²⁾



(말미에 小字로 “扈聖原從功臣 2等으로 承傳을 받들어 追贈한다.[扈聖原從功臣二等依承傳追贈]”라는 구절이 보인다.)

오봉 선생의 관력과 생애는 연보와 행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삶의 전환기에 따라 출생부터 문과에 급제하기까지의 修學期, 壬辰과 丁酉의 兩亂을 겪으며 내직과 외직을 오갔던 戰亂收拾期, 창원에서 부사로 재직하던 昌原府使在職期, 체임 후 고향에 물러난 隱居期 등의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³⁾

1) 修學期

첫 번째 修學期는 文藝나 詞章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연보와 행장에 실린 일화를 통해 오봉 선생의 학문에 대한 태도와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글공부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7세부터로, 한번은 이웃 노인에게 책을 가지고 가서 가르침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이 텃밭을 매러 들어가서 오래도록 나오지 않자 울타리 밖에서 울며 기다렸다가 기어이 수업을 받고 나서야 돌아왔다.⁴⁾ 8세 때 생모의 상을 당해서는 어린 누이를 정성껏 돌보았으며, 김언기에게 수학한 13세부터는 이미 학문의 독실함으로 인정과 기대를 받았다. 14세에는 동학의 실수로 나무꾼이 죽게 되

2) 이하의 고문서 자료는 한국학자료센터(<http://archive.aks.ac.kr/>)에서 수집한 것이다.

3) 김기엽,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梯)의 생애(生涯)와 시(詩)에 표출된 울결(鬱結)의 양상(樣相)」, 『한국한문학회연구』 76집, 한국한문학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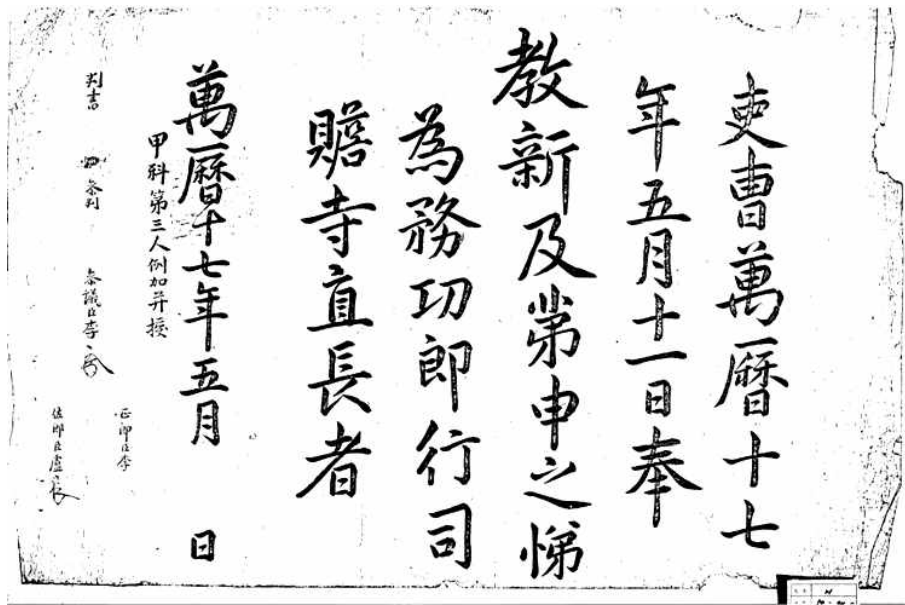
4) 『梧峯集』 「연보」, “先生自幼好讀書. 嘗挾冊請學於隣老, 老方鋤圃久不出, 先生泣立樊外, 必受課學乃歸.”

자 동학 대신 죄를 자처하였고,⁵⁾ 17세에는 독서 중에 자신을 사모하는 여인이 찾아왔는데도 이를 계도하여 돌려보내기도 하였다.⁶⁾

2) 戰亂收拾期

생애의 두 번째는 戰亂收拾期이다. 1589년 문과에서 異端에 대하여 논한 對策文으로 장원을 차지하고 사섬시 직장에 이어 사헌부 감찰로 벼슬을 시작한 이후, 전란을 겪고 수습을 위해 분주히 중앙과 지방을 오가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자료 2〉 1589년에 내려진 告身



- 5) 당시 동학 70여 명이 서당에 돌아가며 불을 지폈다. 하루는 선생이 참판 권태일(權泰一) 공과 절도사 박의장(朴毅長) 공과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동료가 실수로 나무꾼을 밀치는 바람에 나무꾼이 벼랑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나무꾼의 아들이 관아에 고소하여 밀친 동료가 잡혀가자, 선생이 “우리 세 사람이 함께 갔는데 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쓰게 할 수 없다.” 하고 관아로 따라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서로 자신이 밀쳤다고 다투었다. 고을 수령이 한참 지켜보다가 마침내 고소한 자에게 이르기를 “세 아이에게 모두 정승의 기상이 있으니, 차마 일개 촌부의 일 때문에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없다. 관아에서 널을 갖추어 네 아비를 물어줄 것이니, 너는 돌아가라.” 하였다. 그리고 선생에게 “너희들은 염려 말고 돌아가서 글을 읽어라.” 하고, 이어서 서당 근처 마을에서 관아로 들이는 땀감을 서당에 보내게 하여 나무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이를 해마다 관례로 행하게 하였다. [時同學七十餘人，遞煬書室。一日先生與參判權公泰一、節度使朴公毅長，採薪于山，同伴偶推樵氓，氓墜崖角死。其子訴府，逮捕推者，先生曰：“吾三人同往，罪不可獨蒙一人。”相隨入府庭爭死。府伯熟視之，乃謂訴者曰：“三童子俱有宰相氣象，不忍爲一村氓償命。官當備棺椁埋爾父，爾可去也。”謂先生曰：“若等勿慮，退而讀書。”仍以書齋近村柴炭之入官者輸書齋，以代樵勞。歲以爲常。]
- 6) 마을에 사는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절을 왕래하다가 선생의 풍모를 보고 반하여 밤이 깊도록 돌아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선생이 여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는 義에 의거하여 엄히 꾸짖고 그 여인에게 회초리를 가져오게 한 다음 매질하여 돌려보냈다. 수십 일 뒤에 그 남편이 술과 음식을 가져와 주며 “공이 바른 도리를 들어서 마을의 부녀자를 가르쳤다가 사려하러 왔습니다.” 하였으니, 이는 그 여인이 선생의 말에 감동하여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해서였다. [有村女美貌者來往寺中，見先生風儀，至夜深躑躅不去。先生默識其意，據義嚴責，使其女取楚而來，撻而遣之。居數十日，其夫持酒饌來饋曰：“聞公以正道教村女，故來謝耳。”蓋其女感先生言，歸告其夫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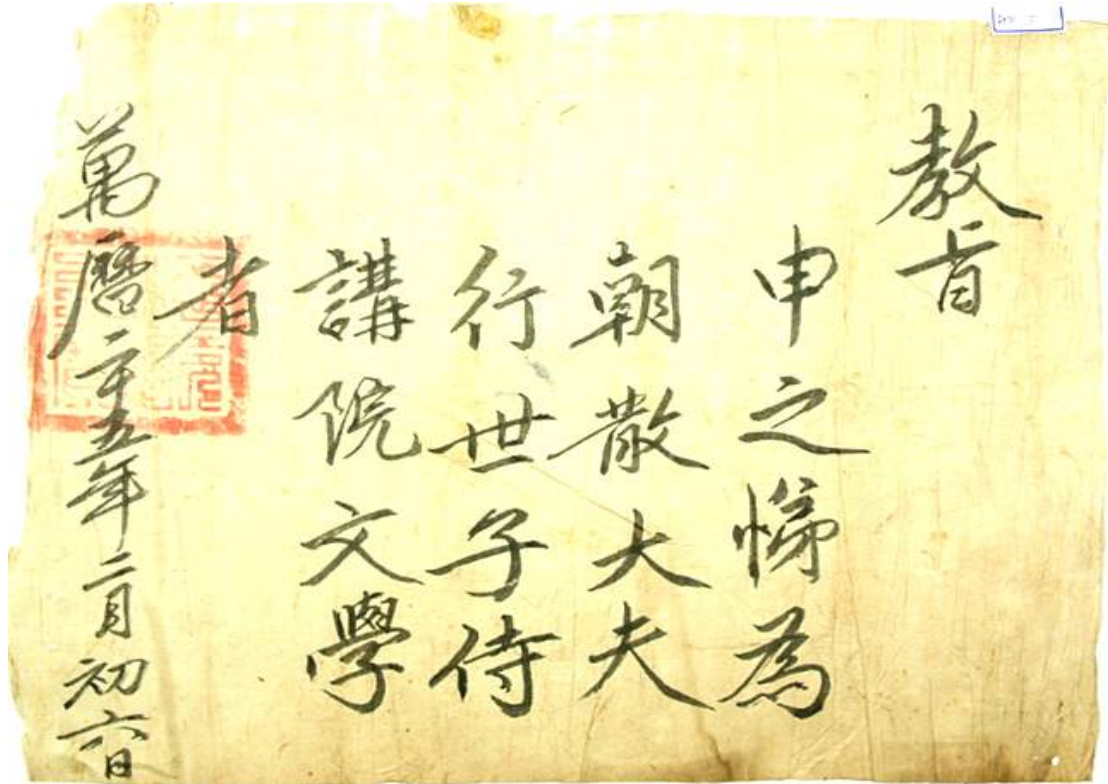
1591년에 예안 현감에 제수된 뒤로는 7년 동안 지방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전란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 와중에 죄수를 풀어주고 빈민을 구제하는 등 선정을 베풀며, 부모님을 봉양할 수 있는 고향 근처의 고을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 李滉에게 직접 배우지 못했던 것을 한으로 여겼던 선생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매달 陶山書院에 가서 이황의 사당에 배알하고, 이황의 문인인 趙穆·金富倫·李德弘·琴蘭秀 등과 경전을 강론하며 학술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

임진왜란(1592) 때 예안 현감과 안동 부사를 겸직하고 의병을 일으켜 영남 지역의 방어에 힘썼는데, 이때 친형 申之孝와 동향의 스승 격인 金誠一, 의병장이자 절친이었던 金垓의 죽음을 겪었다.

〈자료 3〉 1591년에 내려진 告身



<자료 4> 1597년에 내려진 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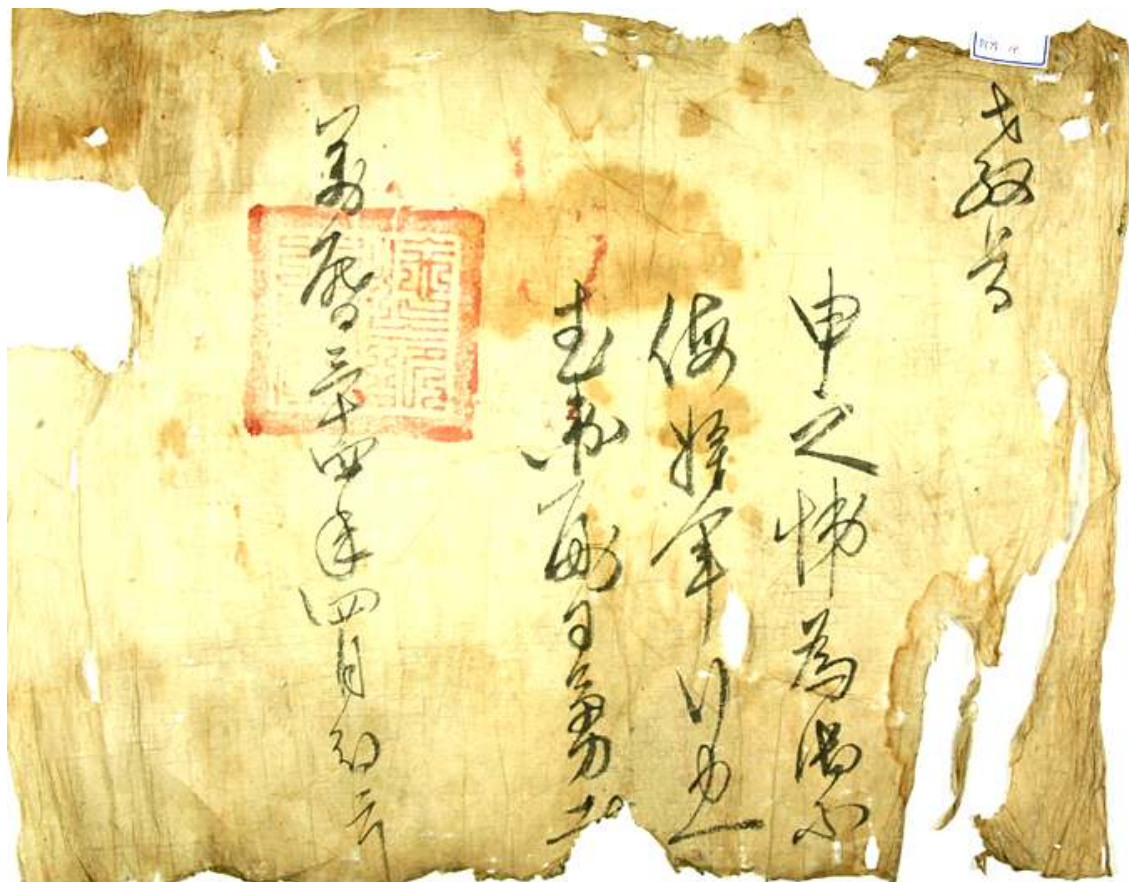


정유년(1597)에 사간원 정언으로 중앙에 복귀한 뒤 세자시강원 문학을 잠깐 지내지만,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다시 순찰사 종사관에 제수되어 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영남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대구의 팔공산성에 들어가 방어하고, 함안에서 황석산성이 함락되자 화왕산성에 있던 곽재우와 연합하여 의병활동을 통해 적을 토벌하였다. 이 공을 인정받아 『倡義錄』⁷⁾에 이름이 기록되고 추후에 호성원종공신 2등과 宣武原從功臣 1등에 책봉되었다.

7) 곽재우의 후손 곽원갑(郭元甲)이 곽재우를 비롯한 의병들의 사적과 인물을 기록한 책으로, 임진왜란(1592) 때 모집에 응한 사람의 명단을 기록한 「용사응모록(龍蛇應募錄)」과 정유재란(1597) 때 화왕산성 방어에 공을 세운 이의 명단을 기록한 「화왕입성동고록(火旺入城同苦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5> 1606년에 내려진 告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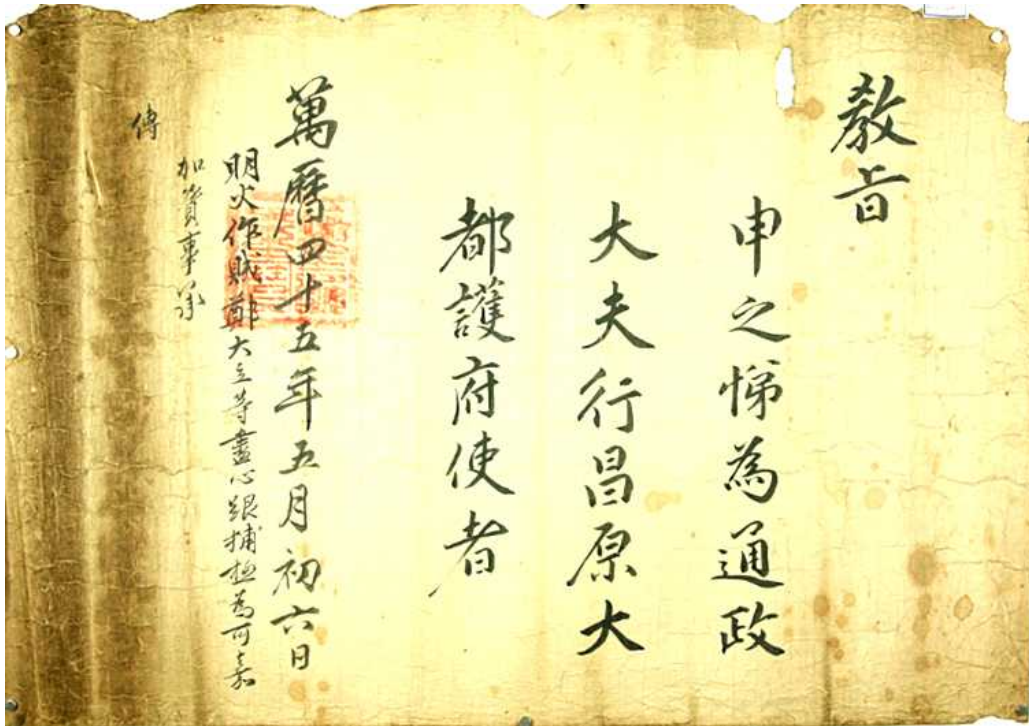
이후 1613년 창원 부사에 제수되기 전까지 전라도 도사·예조 정랑·사헌부 지평·전라도 암행어사·통제사 종사관·공조 정랑·충청도 도사 등을 역임하면서 내직과 외직을 오갔는데, 이 두 번째 시기에 지은 35제의 한시가 권1에 실려 있다.

3) 昌原府使在職期

생애의 세 번째 시기는 1613년 8월부터 1618년 3월까지 경남 昌原에서 부사로 재직했던 기간이다. 수령으로서 화적을 토벌하여 민심을 안정시킨 공을 인정받아 광해군으로부터 資級을 올려주는[賞加] 敎文을 하사받았고,⁸⁾ 문인으로서 지역 名士들과 교류하며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8) 『광해군일기』 115권, 1617년 5월 4일, 형조가 “홍주 목사(洪州牧使) 윤의립(尹義立)은 명화적(明火賊)인 중 경울(景栗)을, 신천 군수(信川郡守) 임석령(任碩齡)은 명화적인 중 광간(宏侃)을, 창원 부사(昌原府使) 신지제(申之悌)는 명화적인 중 정대립(鄭大立)을 마음을 다해 체포하였으니 몹시 가상합니다. 논상하는 일을 상께서 재결하여 결정하소서.”라고 아뢰니, 모두 가자하였다.[刑曹啓曰: “洪州牧使尹義立, 明火作賊僧景栗; 信川郡守任碩齡, 明火作賊僧宏侃; 昌原府使申之悌, 明火作賊鄭大立, 盡心捕捉, 極爲可嘉. 論賞事上裁啓.” 竝加資.] 이때 품계가 올라 통정 대부가 되었다.

〈자료 6〉 1617년 加資 教旨



창원 부사 채직기의 시는 경관을 읊고 題詠에 차운하거나 지인에게 화답·송별하는 내용 외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피폐해진 백성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변방을 배회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울분이 많은 작품에 드러나 있다. 창원 부사 채직기는 비록 5년이라는 짧은 시기에 불과하지만 굴곡진 삶에서 비롯된 문학적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 시기로, 이 기간에 지은 252제는 「檜山雜詠」이라는 편명으로 권2~권4에 걸쳐서 상·중·하로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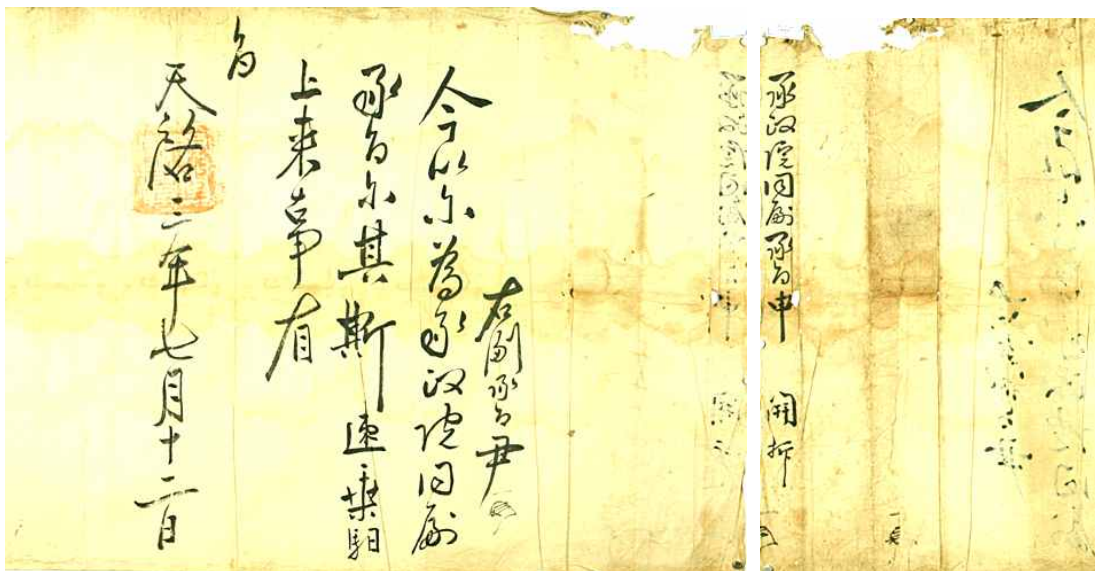
〈자료 7〉 1617년 教書(光海君)



4) 隱居期

마지막 시기는 1618년 龜尾村에 돌아와서 1624년 63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隱居期이다. 창원 부사에서 물러나면서 그동안 지었던 시를 모아 「檜山雜詠」을 엮고, 직접 「檜山雜詠」의 序文을 지었다. 고향에 돌아와 寒岡 鄭述와 東籬 金允安 등 오래 교유했던 지인의 부고를 접하면 애도문을 지어 주고, 남은 벗들과 감회를 읊거나 병든 몸을 요양하면서 지냈다. 1621년에는 화적 떼가 집안에 들이닥쳐 화재로 인해 소장하고 있던 典籍 5백여 권이 소실되는 난리를 겪었다.

〈자료 8〉 1623년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하는 有旨



1623년에 승정원 동부승지에 제수되지만, 이를 사양하고 그대로 은거하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향에 머물렀다. 귀미촌에 은거할 때 지은 작품 95제가 문집 권5에 「龜堂漫錄」이라는 편명으로 실려 있다. 本集에 실려 있는 시들은 대체로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생애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살피는 데에 도움이 된다.

3. 詩에 나타난 현실 인식 -백성의 고된 삶과 부조리한 현실 고발-9)

오봉 선생이 창원 부사 재직기에 지은 시에는 피폐한 백성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다. 아래는 선생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10수의 시로 읊은 「卽事十絶」의 일부이다.

썰렁한 바닷가에 인가 몇 채	蕭條港口兩三家
금년에도 세금 무겁다고 괴롭게 말하네	苦道今年重稅科
가족에게 아전 잘 대접하라 분부하고	分付家人善餉吏
곧 거룻배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네	旋乘舴艋入滄波

.....

나뭇잎 같은 조각배 가난한 살림인데	輕舟似葉生涯薄
관원들 들이닥쳐 다 거두어 가버리네	官將臨門摧利多

아전 사립문으로 줄줄이 들어오니	吏向柴門絡繹過
잡은 물고기 적은데 바칠 것 많구나	得魚稀少稅魚多
아내 울부짖고 남편 달아나 금세 잠잠한데	婦呼翁走須臾定
시린 달빛만 스산하게 갯벌을 비추네	霜月淒涼映浦沙

.....

벃머리에서 나누는 말들 가만히 들어보니	靜聽船頭相偶語
근래 벼슬아치 전혀 청렴하지 못하다 하네	邇來官長太無廉

.....

저물녘 남촌 항구로 신고 돌아오면	黃昏載泊南村港
관리 배에 올라 세금 매기느라 바쁘네	官吏登船課稅忙

추운 연말에 파도 위에서 잠자고	天寒歲暮宿波中
곧장 서풍을 거쳐 삭풍을 맞네	直遡西風到朔風
일 년 내내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도는데	終歲滄溟船泛泛
고기 먹는 사람은 정작 어부가 아니구나	喫魚非是獵魚翁

.....

9) 이하로는 김기엽,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의 생애(生涯)와 시(詩)에 표출된 울결(鬱結)의 양상(樣相)」, 『한국한문학회연구』 76집, 한국한문학회, 2019, 362쪽 이후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노인과 아이 울부짖고 관리 세금 독촉하니	翁兒叫號官催稅
갈매기 백로 모두 놀라 저 멀리 날아가네	鷗鷺渾驚不近飛

이른 아침 해 뜨자 까마귀 모여 있고	平明日出集烏鴉
고깃배 헤아리며 떠들썩한 아전들	括筭漁舟將吏譁
백발의 수령 얼굴이 붉어지니	頭白使君還面赤
붓 들고 저녁까지 세금을 독촉하네	拈毫終夕押催科

여기서는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가난한 백성과 세금 매기기에 바쁜 관리들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고단한 백성의 삶을 황량한 바닷가 정경과 함께 고스란히 그려내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없는 살림살이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가혹한 관리, 독촉을 못 견뎌 울부짖는 아내와 달아나는 남편, 노인과 아이가 울부짖는 모습 등에서 비참함이 극대화된다. 추운 겨울을 가리지 않고 고기잡이에 나서지만 정작 자기가 잡은 고기는 윗사람에게 바쳐지고, 고깃배에 들러붙은 까마귀처럼 세금 독촉하느라 분주한 아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었다.

「苦寒吟」이라는 제목으로 지은 2수 중 두 번째 시¹⁰⁾에는, 수령으로서 눈 내리고 날씨가 추워질 때가 되자 더욱 고달파질 백성들의 생활을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눈 내린 뒤 매서운 추위	雪後寒威緊
남방의 날씨 으스스하네	稜稜楚國天
우물 얼어 밤에 물 길는 이 없고	井堅稀夜汲
뿔감 귀해 아침 밥 짓는 연기 끊겼네	薪貴斷朝煙
변방의 대비는 아직도 위급하고	絕塞防猶急
흉년에도 세금 줄어들지 않았네	荒年賦未蠲
백성이 겪는 수많은 고통을	蒼生多疾苦
누가 구중궁궐에 전해 주려나	誰達九重筵

추운 날씨에 우물이 얼고 눈이 내려 뿔감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흉년을 겪은 창원의 백성에게 세금을 덜어주지 못하는 자책이 엿보이며, 마지막 구에서는 눈앞에 고통 받는 백성의 실상을 임금이 알아주기를 바람이 나타나 있다.

이 시기의 작품에는 전란을 겪은 뒤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에 관료로서의 책임감을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없는 현실과 자신의 처지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시가 적지 않다. 아전들이 백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시를 통

10) 『梧峯集』 권3 「檜山雜詠·中」, 「苦寒吟」

해 직접적으로 폭로하고, 세금을 걷어 올려야 하는 위치와 백성을 보듬어야 할 수령의 입장에서 갈등하며,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작품들을 통해 선생의 번뇌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장 군문 앞에 높이 선 깃발	大將轅門百尺旗
지휘하는 장교들 모두 용맹한 자일세	指揮羣校盡熊羆
궁궐에 아뢴 군공에 대해 들으니	還聞奏級蓬萊殿
힘없는 한 아녀자에게 빌린 것이라네	反借區區一女兒

드넓은 바다에 한 조각 배	萬頃滄溟一葉舟
무딘 상앗대로 사나운 왜구 물리쳤네	摧殘強虜櫓聲柔
세상 어느 사내들 보다 담대했지만	人間無膽諸男子
제멋대로 공을 차지한 이는 모두 젊은이라네	橫帶黃金盡黑頭

이 시는 「海錄」 9수 중 6, 7수에 해당하는데, 전란이 있었던 과거에 백성의 軍功을 차지하였던 장수를 풍자한 작품이다. 이 시의 아래에 부기된 小注의 내용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小注) 위 2수는 병영의 아낙에게 준 것이다. 이 아낙이 임진년 밤중에 왜인 셋을 만났는데, 뗏목을 타고 와 배를 탈취하려 하였기에 조카 두 명과 함께 상앗대를 집어 들고 때려 죽였다. 당시 수군절도사였던 元均이 그 수급을 가지고 자기 집안 자제의 공으로 올렸다.¹¹⁾

小注에 나타난 시의 배경은 왜적이 쳐들어왔던 壬辰이나 丁酉의 일이다. 밤에 배를 탈취하기 위해 잠입한 왜구를 변변한 무기 없이 물리친 용감한 아녀자의 공을 치하하고, 장수로서 부끄러움도 없이 백성의 공을 빼앗아 자기 자제들의 업적으로 대궐에 올렸던 원균을 비난하였다. 전란 중에 힘없는 아녀자의 신분이라 장수에 의해 공을 빼앗겼던 불공정한 현실을 전란이 끝난 창원 부사 재임기에 읊은 것은, 전란의 체험이 시적으로 수용되는 양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선생의 鬱結이 개인과 현재의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시는 임진왜란 때의 일을 떠올리다, 우연히 두보의 시를 읊고 감회가 있어서 지은 시이다.¹²⁾

11) 『梧峯集』 권2 「檜山雜詠·上」, “右二首贈營嫗。此嫗壬辰夜半, 逢倭三人乘桴來欲奪舟, 與姪兒二人持櫓拍殺。時水使元均以其級, 錄於渠家子弟。”

12)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憶壬辰年中事 偶詠肥肉大酒徒相要 感而述」

백성은 겨 죽만 질리게 먹는데	黎蒼厭糠粃
관아 주방에는 고기 수북하구나	廚肉堆繽紛
유리잔에 삼백 잔 들이키며	玻璃三百斛
날마다 거나하게 취하네	日日醉醺醺
장군은 배 저버리지 않는데	將軍不負腹
배는 어찌 장군을 저버리는가	腹何負將軍
한 번이라도 지략을 내어	未嘗出一智
오랑캐 심멸한 적 없었구나	殲彼頑虜屯

두보의 시 「嚴氏溪放歌行」¹³⁾ 중에 “살찐 고기와 많은 술을 공연히 서로 요구하다 [肥肉大酒徒相要]”라는 부분을 읊고 지었다고 한다. 이 「嚴氏溪放歌行」 또한 두보가 전란에 떠도는 처지를 노래한 것인데, 오봉 선생이 전란을 겪은 후 먼 변방에 부임한 자신의 신세를 이에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

‘장군은 배[腹]를 버리지 않았지만 배[腹]가 장군을 버렸다’는 말은 宋나라 太尉인 黨進과 그의 부하들이 나눈 말을 인용한 것이다.¹⁴⁾ 이는 위 시의 小注에도 밝혀져 있는데,¹⁵⁾ 자신만 배불리 먹고 부하들의 굶주림과 원망을 외면한 黨進을 인용하여 임진왜란 때 자신의 배를 불리기만하고 왜적을 물리쳐야 할 본분을 망각한 장수를 비판하였다. ‘겨로 만든 죽으로 연명하는 백성과 고기가 가득한 관아의 부엌’과 ‘배부른 장수와 굶주린 군사들의 모습’ 등, 대비의 양상을 두 가지로 드러내어 아랫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전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실책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출하였다.

4. 남은 과제 : 結言을 대신하며

현재까지 오봉 선생의 문학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않다. 선생의 시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생애를 재정리하고 가장 많은 한시가 수록된 「檜山雜詠」의 주된 정

13) 『全唐詩』 卷220, 「嚴氏溪放歌行」【溪在閩州東百餘裏】, “天下甲馬未盡銷, 豈免溝壑常漂漂. 劍南歲月不可度, 邊頭公卿仍獨驕. 費心姑息是一役, 肥肉大酒徒相要. 嗚呼古人已糞土, 獨覺志士甘漁樵. 況我飄轉無定所, 終日戚戚忍羈旅. 秋宿霜溪素月高, 喜得與子長夜語. 東遊西還力實倦, 從此將身更何許. 知子松根長茯苓, 遲暮有意來同煮.”

14) 『東坡詩集註』 권7, 俗諺云: “大將軍食飽, 捫腹而歎曰: ‘我不負汝.’ 左右曰: ‘將軍固不負此腹, 此腹負將軍, 未嘗出小智慮也.’”

15) 『梧峯集』 권4, 「檜山雜詠·下」, 「憶壬辰年中事 偶詠肥肉大酒徒相要 感而述」 小注, “속담에, 대장군이 배불리 먹고 배를 쓰다듬으며 ‘내가 너[腹]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탄식하자, 좌우의 사람들이 ‘장군은 진실로 그 배를 저버리지 않았지만 우리 배는 장군을 저버렸으니 일찍이 작은 지해도 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諺云大將軍食飽, 捫腹而歎曰我不負汝. 左右曰將軍固不負此腹, 此腹負將軍, 未嘗出小智慮也.]”

서에 대하여 다른 필자의 기존 연구는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의 부족한 역량과 제한된 지면으로 인해 오봉 선생의 문예적 역량을 미처 다 드러내지 못하였기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획했던 추후 과제들을 附言하면서 남은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오봉 선생이 교유한 문인 중에는 저명한 문인들이 적지 않게 보이는데, 교유한 문인들의 시적 경향 및 交遊詩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생애 다른 시기의 작품 특징과 비교하거나, 선생이 차운한 杜甫 시·인용된 唐詩의 비중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學唐의 흔적을 추출하여 風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이후 오봉 선생의 문학 세계가 이상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졸렬한 글을 마무리짓고자 한다.

【참고 문헌】

[원전 자료]

『古文書集成』 권77, 「의성아주신씨 오봉가문·호계가문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申之悌, 『梧峯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소장본.

[단행본]

신지제 著, 김기엽 외 역, 『(국역)梧峯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2019.
심경호, 『한국 한시의 이해』, 태학사, 2000.
이가원, 『한국한문학사』, 보성문화사, 2005.
임준철, 『조선중기 한시 의상 연구』, 일지사, 2011.

[학술지]

김기엽,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의 생애와 시에 표출된 울결(鬱結)의 양상」, 『한국한문학연구』 76집, 한국한문학회, 2019.
박명숙, 「오봉 신지제 선생의 생애와 학문」, 『동양예학』 38집, 동양예학회, 2017.
심경호, 「한국 한시의 역사」, 『한국한시연구』 1권, 한국한시학회, 1993.
심경호, 「《梧峯先生文集》 해제」, 『(국역)梧峯先生文集』, 한국국학진흥원, 2019.
이동환, 「회재의 도학적 시세계」,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張弼基, 「조선후기 義城 鵝州申氏家の 가계 이력과 향촌 재지 기반」, 『사학연구』 제88호, 한국사학회, 2007.
황만기, 「오봉 신지제의 학문 경향과 삶의 제 양상」, 『영남학』 69, 영남문화연구원, 2019.

[웹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